

부산부 편입 이후 서면 지역의 공업화에 관한 연구

- 부전리, 가야리를 중심으로 -

선우성혜*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산부의 확장과 서면의 공장지대화
 - 1. 서면의 부산부 편입 과정
 - 2. 공장지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III. 서면 일원 사업체 동향
 - 1. 편입 전후 사업체 동향
 - 2. 소재지별(부전, 가야 제외) 사업체 설립 현황
 - 3. 부전리, 가야리 사업체 설립 현황
- IV. 부전리, 가야리 공장 실태
 - 1. 부전리 사례 : 東洋燃料(주) 부산공장
 - 2. 가야리 사례 : 朝鮮電氣製鋼(주), 방직제조업군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서면 지역의 부산부 편입 이후 공업화에 관하여 부전리, 가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서면이 부산부가 공업도시이자 전시 군사적 역할 할 수 있었던 주요 무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래 동래군의 행

*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교수 / 65850@deu.ac.kr

정구역이었던 서면은 1936년 부산부로 편입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시가지계획 아래 부산부 내 인구의 밀집, 용지의 부족 등 문제의 해결과 부산부의 군사적, 산업적 역할 강화라는 목적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서면은 부산부와 인접한 평지로 부산부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위험시설과 공장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았던 곳이었다. 서면은 부산도시계획에 따라 부전리, 부산진, 적기만 등의 토지구획 정리, 교통가로망 정비를 통해 산업지대, 임해공업지대로 형성되었다.

편입 후 서면 지역의 사업체 설립이 급증하였으며 업종의 경우에도 전시통제경제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전리, 가야리를 제외한 지역의 편입전후 사업체 현황을 보면 서면 북부 지역(당감, 부암, 범전, 전포)은 1939년 이후부터 사업체 설립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부선, 동해남부선 주변으로 사업체 설립이 많아지고 있었고, 철도 주변으로는 군용지로 이용되었다. 서면의 동남부 지역(문현, 감만, 우암, 적기, 용호)의 경우 부산진, 적기 매축이 진행되고 임항철도가 건설되는 시기 사업체 설립이 많았다.

부전, 가야에 설립된 사업체 역시 1939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시통제물자이지만 일상생활에 소비되거나 전시 편승 가능성이 높은 물자를 취급하는 업체가 많았다. 부전의 경우 부산시가지계획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정비 대상이 된 지역이다. 가야의 경우 부전과 같이 부산부 편입 단계부터 집중 정비지역은 아니었지만 1943년 조차장 가야역의 개통 전후 군수동원 가능 업체가 집중 설립되었던 지역이다. 또 부전리, 가야리에 설립된 사업체 위치는 ‘부산진-구포/동래-항만’을 잇는 교통 결절지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의 이동도 빈번한 곳이다. 요컨대, 부전리, 가야리의 사업체는 물자 운·수송에서 교통편의성이 높고, 여러 업종 또는 유사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특히 동양연료(주) 부산공장 설치와 조선전기제강(주)의 군수회사 제2차 지정 대상 및 방직관련 업체의 집적 모습은 서면 설립사업체의 전시 협력 또는 편승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부산부, 부역확장, 부산부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 시가지가로망정비, 서면, 부전리, 가야리, 전력증강공업지대

I. 머리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서면 지역의 부산부 편입 이후 공업화에 관하여 부전리, 가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서면이 부산부가 공업도시이자 전시 군사적 역할 할 수 있었던 주요 무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서면의 부산부 편입에 관하여 서면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보다 매축, 부산부의 도시개발, 부산시가지계획 등 부산의 도시사와 관련한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가 축적되었다.¹⁾ 대표적으로 김홍관²⁾은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개발과 그 성격을 도시계획과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변화를 표와 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계획과 항만개발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고찰했다.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김경남³⁾의 연구는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인 『부산도시계획결정』(1934~1942년) 문서철과 일본 방위성 문서를 분석하여 부산시가지계획이 도심지의 기능 분산과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적·군사적 목적이 있음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부산의 시가지계획이 일본의 대외 확장과 침략전쟁의 목적 아래 추진되었던 전시체제를 돕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1936년 서면 편입과 함께 이루어진 서면 지역의 도

1) 배석만, 「1930년대 부산 적기만 매축 연구」, 『항도부산』 28, 2012. 차철욱,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 『한국민족문화』 28, 2006. 홍순연, 「부산지역 근대 항만도시형성에 따른 항만활동의 변화-항만매축과 산업 활동 동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2021. 등.

2) 김홍관,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개발과 그 성격-도시계획,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15, 1998.

3) 김경남, 「한말 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지역과 역사』 5, 1999; 「1930년대 일제의 도시건설과 부산 시가지계획의 전개와 특징」, 『지역과 역사』 20, 2007; 「1930·40년대 전시체제가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시 가로망 정비 및 토지구획 정리가 산업적·군사적 목적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차철욱⁴⁾은 기왕의 부산 시가지변화, 항만매축,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지계획에 대한 연구가 계획에 대한 분석과 고찰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화상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 외 박섭⁵⁾은 부산이 가지는 결절점 지위를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부산의 개발 구상 주체로 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부가 가진 결절적 지위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산부가 공업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했음을 고찰했다. 서면이 결절지역인 점에서 박섭의 연구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박영구⁶⁾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산시가지계획 무렵 및 전시체제 하 제조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공황기를 통과하면서 부산 제조업의 적극적 대응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또 전시경제 하 부산의 제조업체가 기업의 구조전환·자본규모확대·업종전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시 편승과 소외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고찰했다. 특히 전시경제 하 부산의 제조업체 변화에서 분석 대상 기업은 서면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서면의 공업화는 전시체제에 편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인호⁷⁾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4) 차철욱,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항도부산』 23, 2007.

5) 박섭,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개발 구상, 1915~1937: 결절점 지위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32-3, 2014.

6) 박영구, 「외부충격과 지역경제: 부산제조업회사, 1908~1936」, 『한국경제학보』 15-2, 2008; 「전시기 부산 제조업회사의 성격 변화」, 『지역사회연구』 16-2, 2008.

7)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1940년대 조선공업의 대외적 성격과 조선인 자본가의 중국 ‘침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2000; 『태평양전쟁과 조

김인호는 식민지 전반에 걸친 공업정책을 일본 본토 위주의 공업화, 민족 차별적 공업화, 대체재·대용품 생산 중심의 공업화, 노동력 희생과 시장제도와 질서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업화, 해방 후 남한 공업의 변화에 남긴 일본의 공업정책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총독부의 일련의 공업정책 아래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업체 설립과 전시체제화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왕의 연구성과를 통해 1936년 부산의 시가지계획과 서면의 부산부 편입은 부산부의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적·군사적 목적이 분명함이 확인되었다. 또 식민지 공업정책 변화의 전반적 흐름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부산을 대상으로 1930년대 중반 이후 부산의 공업변화, 특히 전시체제 하 공업의 동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산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공업화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역 단위인 서면의 공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사적 측면에서 서면의 공업화에 대해 특히 1940년대 이후 사업체 설립이 많았던 부전리, 가야리를 중심으로 편입 전후 사업체의 설립, 분포, 업종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자료는 『조선총독부관보』, 『조선회사조합요록』(각 연도 판.), 『조선공장명부』(각 연도 판.), 『한국회사100년사DB』(허수열 외, 2018.) 등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한다. 사업체 분포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주소지가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주소지의 <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지도(1946년 생성)>를 기초로 한다. 한편 <부록>의 사업체 표기는 ‘2=주식회사, 3=합명회사, 4=합자회사, 5=주식합명회사, G=경남’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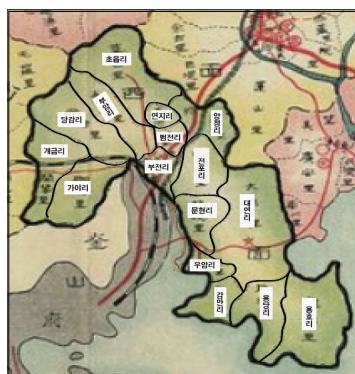
요컨대, 본 연구 기왕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부산부 편입 이후 서면의 공업화를 특히 부전리와 가야리에 설립된 사업체를 중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부산부의 부역 확장과 서면의 공장지대화, 2. 서면 지역의 사업체 동향, 3. 부전리, 가야리의 공업화 사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부산부의 확장과 서면의 공장지대화

1. 서면의 부산부 편입 과정

서면은 1936년 2월 14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⁸⁾ 일제강점기 서면은 본래 동래군에 속한 곳으로 오늘날 부산진구를 비롯하여 연제구, 동구, 남구 일부를 포함한 곳이었다. 부산부 편입 당시 서면에는 가야리, 개굴리, 당감리, 부암리, 초읍리, 연지리, 범전리, 부전리, 양정리, 전포리, 문현리, 우암리, 감만리, 용호리, 용당리, 대연리가 속하였다.⁹⁾ 1936년 서면의 부산부 편입은 부산부 밀집 인구의 분산과 각종 용지 부족 등 문제



〈그림 1〉 편입 시기 ‘서면’의 범위
(『東萊郡勢要覽』, 1929.)

8)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2월 14일, 2724호 3면.

9) 구체적인 행정구역 변화자료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리’는 오늘날 ‘洞’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부산부 편입 후 감만리, 우암리 일대에 ‘赤崎通’의 명칭이 생겼으나 대부분 서면 관할 ‘리’는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朝鮮總督官房地方課編, 『朝鮮行政區域便覽』, 朝鮮行政學會, 1944.). 적기동은 1정목에서 5정목까지 있었는데 1982년 5월 1일자로 적기 1가는 문현 4동, 적기 2·4가는 우암동, 적기 3가는 우암 1동, 적기 5가는 감만동에 편입되었다(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제3권)-남구편』, 1997, 22쪽.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2001).

해결 및 공업지대 형성, 부산부의 군사적 역할 강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부산부는 인구가 급증하고 도심지가 발달하면서 해안 매축을 통해 생활 및 상공업 공간을 확보해 갔다. 그럼에도 향후 인구 약 30만, 40만 명의 증가를 예상하며 부역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였다.¹⁰⁾

부산부는 1925년 9월 무렵 ‘부역 확장을 위한 동래군 관할 지역의 편입을 계획·조사’하였다.¹¹⁾ 이어서 1926년 湯淺 정무총감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동래군 사하면 및 서면 전부와 남면 일부를 부산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서면 방면이 포함되면 360만 평이 증가하고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았다.¹²⁾ 1930년 구체적인 「도시계획안」이 수립되었고 1931년 행정구역 확장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1932년 12월 20일 무렵 부산부확장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¹³⁾

1933년 1월 부산부 부역 확장과 周回도로 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8월에는 공장, 위험시설 등의 이전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93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는 「부산시가지계획안」을 결재하였고 시가지계획위원회를 통해 시가지계획구역, 가로망,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의 결정안 등이 심의되었다. 1936년 5월 7일에는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하여 조선군사령관, 진해만요새사령관, 진해요항부사령관의 의견을 조회하기도 하였다.¹⁴⁾

10) 『釜山商工案内』, 釜山商工會議所, 1932, 3쪽~4쪽., 「부산시가지계획 평면도」(『부산 도시계획결정』 문서철, 국가기록원, CJA0022542).

11) 『毎日申報』 1926. 6. 20., ‘釜山府の行政區域擴張 政務總監에 陳情?’.

12) 『부산일보』 1929. 2. 20., ‘서면 방면을 포용한다면, 다시 360만평이 증가하고 18만 명을 수용; 시민의 자각을 요구하는 부산의 도시계획’.

13) 『毎日申報』 1932. 12. 20., ‘慶尙南道, 釜山府擴張調査委員會, 二十日第一回を開く’. 『毎日申報』 1932. 12. 20., ‘釜山府行政區域調査協議’. 『朝鮮新聞』 1932. 12. 23., ‘慶尙南道, 釜山府行政區域擴張, 第一回委員會開催, 實現すれば面積倍增, 人口も亦十六萬近し’.

14) 김경남, 「1930년대 일제의 도시건설과 부산 시가지계획의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4, 164쪽.

府당국에서는 這般 본부 토목과에서 작성한 부산부의 도시 계획을 착작 실현코저 간선도로 시설공사를 위시하여 船溜정리공사, 기타의 시구개정을 수행 중인데 전기 도시계획령이 발포·적용된 후에는 먼저 府에 편입될 예정인 서면방면을 공장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府內에서 惡臭雜音을 발하고 煤煙을 분출하여 부민에게 다대한 곤란을 주고 있는 각종 공장을 전부 서면에 이전케 하여 도시위생의 완벽을 기할 방침으로 한다.¹⁵⁾

부산부는 서면을 공장지구로 지정하여 부산부의 도시위생에 문제가 되는 시설을 이전하고자 하였다. 『부산도시계획』에 따라 부산부가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서면과 사하면 등 부산부에 접경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부산부 부역 확장안의 주요 요지는 ‘서면 전부가 평탄한 들판으로 형성되어 부산시내와 연결되어 있어 그곳으로밖에 공장지대가 쉽게 진출할 곳이 없다’¹⁶⁾는 것이었다. ‘서면은 대공장지대가 형성될 것을 추상할 수 있고 부산의 중앙지대는 부산진방면’¹⁷⁾이 된다는 것이었다. 부산부로서는 바로 인접한 서면의 편입이 위험시설의 이전과 산업지대 조성에 수월하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부산부가 서면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편입지역민들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서면의 조선인들은 서면번영회를 조직하고 서면의 부산부 편입을 반대하였다.¹⁸⁾ 반대 이유는 서면과 부산부의 지역 격차, 농

15) 『每日申報』 1933. 8. 12., ‘都市計劃令適用을 豫想하는 釜山府 工場과 危險施設은 西面に 指定 府와 道保安課調査’.

16) 『東亞日報』 1936. 1. 12., ‘大都市의 府勢擴張案 釜山府 (一) 工場地帶中心으로 大釜山建設諸計劃 人口는 一躍 二十萬에’. 『東亞日報』 1936. 1. 14., ‘大都市의 府勢擴張案 釜山府 (二) 大工場處處建設 釜山鎮中心으로 發展 擴張面積 千三百萬坪’.

17) 『東亞日報』 1936. 1. 14., ‘大都市의 府勢擴張案 釜山府 (二) 大工場處處建設 釜山鎮中心으로 發展 擴張面積 千三百萬坪’.

18) 『東亞日報』 1932. 12. 7., ‘東萊郡西面釜山編入反對 농업지도시 편입은 부담 과중 西面繁榮會組織活動’. 『每日申報』 1934. 12. 30., ‘釜山府區域擴張 併合은 時期問題 東萊郡西面民은 反對’.

민들에게 도시의 과중한 세금(공과금)은 부담, 관청까지 거리가 멀다는 등이었다.¹⁹⁾ 그러나 부산부 행정구역확장위원회의 실지답사가 완료되었고 이를 부회에서 결의한 후 경남도에 上申하여 편입 수속을 취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서면 거주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은 각기 다른 날짜에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편입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였다.²⁰⁾

서면 조선인들은 편입준비를 위한 기간을 둘 것과 편입에 따른 대가 및 상실되는 권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편입준비 기간은 5년으로 두고 그동안 우편소, 공설시장, 대소공장, 공설 운동장 및 유원지, 도로망 정비, 전차의 연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편입 후에는 諸公課金を 10년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 府의 출장소 설치, 공립보통학교의 학급 증설과 대연사립강습소의 공립보통학교 전환, 영농자 지도장려 및 권농시설의 유지, 편입에 따른 각종 보상 등의 조건을 요구하였다. 이는 편입 반대 당시의 ‘서면과 부산부의 격차,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 원거리 소재 행정관청’으로 인한 불편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²¹⁾ 서면 거주 일본인들은 편입 시 경찰서를 설치하여 불편 불안을 해소할 것, 도로 설치에 따른 수익세에 반대, 철도·궤도 열차·동해선·우마차의 교통이 많아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문제 해결, 소학교의 신설, 공립학교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²²⁾ 이후에도 서면 편입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으나 이미 서면 편입은 기정사실화되었고 편입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논의만 필요한 상황이었다.²³⁾

19) 『毎日申報』 1933. 2. 11., ‘아즉 純然한 農村을 都市編入은 反對 東萊郡西面民이 道에 陳情 釜山府擴張案挫折’.

20) 『釜山日報』 1933. 9. 29., ‘釜山府の行政區域擴張問題に對する, 内地人側西面居住民大會廿七日午後一時より普校に開く 鮮人は來月一日頃開催’.

21) 『朝鮮中央日報』 1933. 10. 2., ‘編入, 前編入後の 諸要求條件決議’.

22) 『釜山日報』 1933. 9. 29., ‘釜山府の行政區域擴張問題に對する, 内地人側西面居住民大會廿七日午後一時より普校に開く 鮮人は來月一日頃開催’.

23) 『毎日申報』 1934. 12. 30., ‘釜山府區域擴張 併合은 時期問題 東萊郡西面民은 反對’.

2. 공장지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6.20.)에 따라 1936년 서면 편입 후 「부산시가지계획」에 의한 도로망·토지구획정리(조선총독부 고시 제188호, 1937.3.23.)가 있었다.²⁴⁾ ‘부산부는 군사·경제상 중요한 지위에 있고 특히 장래 공업지로서 요소를 다분히 기대’하는 곳이었다.²⁵⁾ 부산시가지계획이 계획·추진되면서 부산정차장에서 초량, 부산진 및 서면 일대, 우암리, 감만리, 대연리 등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가 설치되었다. 토지구획정리는 범일정(범일정, 문현리, 부전리, 전포리의 각 일부), 부전리(부전리, 전포리, 범전리, 양정리의 각 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산항과 부산역 주변 도로 정비, 영선정 매립지구, 부산진 매립지구에 공업지구 형성, 문자를 적기만에 있는 군수창고와 연결하기 위해 범일동, 대연리 도로가 정비되었다. 범일정-감만리를 잇는 도로개수, 자성대부근, 조선방직회사 부근. 송도부근의 도로개수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자성대-해운대-동래’를 이어주고 적지만 일대의 군수물자 창고와도 연결될 수 있었다.²⁶⁾

부산진과 적기만은 일제의 국책과 민간기업에 의해 매축되어 임해공업지역을 형성하였다.²⁷⁾ 1913년에서 1932년 사이 부산진 매축이 추진되었다. 1929년에서 1942년 사이 범일동 지역의 회사 설립은 부산진매축과 전차의 개통, 街路의 조성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졌던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진 매축 제1기공사(1913-1917)가 완료된 후 현 초량동 일부, 부산진역, 좌천역, 범일동 뒤편 등 약 14만 평의 부지가 새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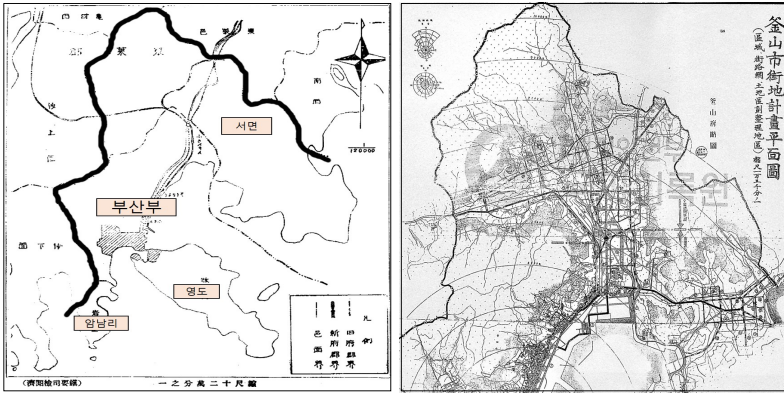
24) 「제1절 광복이전 부산의 도시계획」, 『釜山市史 第3卷』,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1991.

25) 「시가지계획에관한건(신청안)」, 『부산도시계획결정』, 국가기록원, CJA0022542

26) 차철욱,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항도부산』 23, 2007. 김경남, 앞의 논문, 2004.

27) 부산근대역사관, 『근대 부산항 별곡』, 2016, 110~113쪽.

〈그림 2〉 1936년 부산부 부역과 토지구획정리 구역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2월 14일,
2724호 3면.

『부산시가지계획 평면도(부분)』
(『부산도시계획결정』 문서철, 국가기록원,
CJA0022542).

게 생겼다. 제2기 공사(1926-1934년)를 통해 현재 매죽지마을로 불리는 일대 대부분이 매립되어 16만2천여 평이 새롭게 조성되었다.²⁸⁾ 1930년 9월경 부산진에서 범일정에 街路건설이 추진²⁹⁾되었으며 1933년 9월 21일 부산진에서 범일동을 종점으로 하는 전차가 개통³⁰⁾되었다. 1935년 가을부터 범일정 전차 종점에서 삼화고무회사 앞까지 도로 폭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다.³¹⁾

서면이 편입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이미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³²⁾ 1921년 무렵부터 서

28)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의 부산 동구이야기』, 2016, 39쪽.

29) 『釜山日報』 1930. 9. 24., ‘부산진 범일정 가로 건설계획’. 『釜山日報』 1930. 9. 21., ‘釜山鎮凡一町街路建設申請’.

30) 『釜山日報』 1933. 9. 22., ‘부산진에서 범일동까지 전차 개통(부산)’.

31) 『釜山日報』 1936. 5. 2., ‘釜山 交通의 動脈인 凡一町 道路擴張 十二間 도로의 공사를 진행, 兩地主는 賣地에 不應’.

32) ‘朝鮮移出牛檢疫所, 수리조합, 용호보통학교, 서면공립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서면전화중계소, 조선농업회사, 제염소, 천일고무, 보생고무, 환신인건, 경마장 외 21개

면에 설립된 조선인 회사 및 공장이 5개사, 공장이 9개소였으며 일본인 업체만 해도 회사 2개사, 회사 및 공장 11개사, 공장 13개소가 설립되었다. 상수도의 경우에도 성지곡 수원지가 있었으며 양산 법기리 수원지의 송수관이 서면을 관통하고 있어 배수지를 만들기 용이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미 서면 각 촌락마다 송전망을 사용하고 있어 공장이 들어서도 사용하기 수월하다고 보았다.³³⁾

요컨대, 서면은 부산부와 연결된 평지로 공장지대의 형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부산부의 밀집 인구도 분산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 이에 부산시가가지계획에 따라 서면 각 지역의 토지구획이 정리되고 교통 가로망이 정비되었다. 서면은 ‘항만-철도’를 통해 ‘일본·동남아-부산·동래-조선 내륙·중국·만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통 결절지이자 항만을 안고 있는 산업·공업지대가 되었다.

Ⅲ. 서면 일원 사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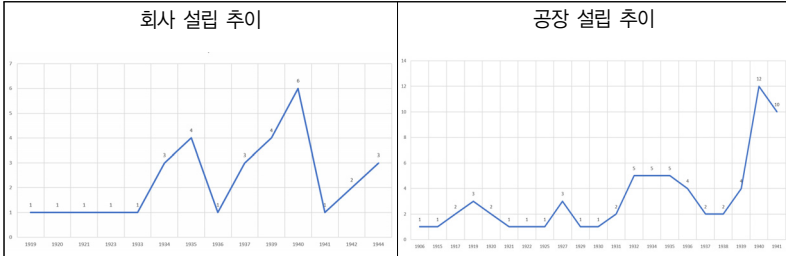
1. 편입 전후 사업체 동향

먼저 1914년에서 1945년 사이 서면 지역에 설립된 사업체를 보면 회사는 약 32개 사, 공장은 약 68개 소로 연도별 설립 추이를 보면 <그림 3>와 같다.

소의 공장이 있었으며 안남에는 牛疫血清製造所가 있었다.(『東亞日報』 1936. 1. 14 일., ‘大都市의 府勢擴張案 釜山府 (二) 大工場處處建設 釜山鎮中心으로 發展 擴張面積 千三百萬坪’).

33) 『東亞日報』 1936. 1. 14., ‘大都市의 府勢擴張案 釜山府 (二) 大工場處處建設 釜山鎮中心으로 發展 擴張面積 千三百萬坪’.

〈그림 3〉 1914년~1945년 서면 지역 회사·공장 설립 현황



*출처: 『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비고: ①제조업체만 표기함. ②중복되는 것은 제외함. ③명칭으로 회사·공장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가 다르면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였음. ④공장의 경우 1940년 이후 설립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朝鮮工場銘簿』 최종 수록 판 조사시점을 설립 시기 추정함.

<그림 3>에 의하면 1914년에서 1935년 부산부 편입 이전 서면에 설립된 회사는 12개 사로 전체 설립 회사의 약 37.5%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공장의 경우 편입 이전 설립된 곳은 34개소로 전체 설립 공장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편입 이전 시기 회사의 경우 1933년에서 1935년 사이 12개 사 중 약 66.67%인 8개 사로 설립이 많았다. 공장의 경우 1932년에서 1935년 사이 34개소 중 약 47.05%인 16개소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서면 편입이 활발히 논의되던 1932년에는 부산부확장조사위원회가 개최, 1933년에는 부산부 부역 확장과 주회도로 개설에 대한 조사, 공장, 위험시설 등의 이전 논의도 있었다.³⁴⁾ 1934년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산시가지계획안』이 결재되었고 시가지계획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심의되었던 때였다.³⁵⁾

34) 『毎日申報』 1932. 12. 20., ‘慶尙南道, 釜山府擴張調査委員會, 二十日第一回を開く’. 『毎日申報』 1932. 12. 20., ‘釜山府行政區域調査協議’. 『朝鮮新聞』 1932. 12. 23., ‘慶尙南道, 釜山府行政區域擴張, 第一回委員會開催, 實現すれば面積倍增, 人口も亦十六萬近し’.

한편 편입 이후 서면의 사업체 설립을 보면 회사는 전체 32개 사 중 20개 사로 약 62.5%가 설립되었다. 공장은 전체 68개소 중 편입 이후 34개 소가 설립되어 약 50%를 차지하였다. 회사와 공장 모두 편입 이후 설립이 많아지고 있다. 회사의 경우 특히 1937년에서 1940년 사이 14개 사가 설립되어 편입 이후 설립된 회사의 약 70%에 달했으며 1944년에도 3개 사가 설립되었다. 공장의 경우에도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설립된 업체가 26개소로 편입 이후 설립된 공장의 76.47%에 달했다. 이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일련의 중소기업 조직화 및 육성대책에 의한 것으로 일본 본토 공장과 시설의 이주, 조선인 및 일본인 공장의 확대를 꾀하고³⁵⁾ 부산부가 일본-부산-중국(북경)을 잇는 직통로로 공업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³⁷⁾ 되던 때였다.

특히 편입 후 회사의 경우 1944년 3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업체는 「군수회사법」(법률 제108호, 1943.10.28.)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군수회사법」은 주요한 민간회사를 전면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으로 ‘생산기구에 대한 철저한 국가성을 확보하여 일원적인 생산라인의 가동과 소기의 생산량 확보’하는 것이다.³⁸⁾ 그러나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잠정적 조치로 ‘군수생산책임제(1944.4.1.)’가 실시되었다.³⁹⁾ 그 대상사업은 병기·항공기·함정·선박·차량(부품)/철강·비철금속·경금속, 희귀금속·기타 중요광산물/액체연료·유탄유·석탄·가스·코크스·전력/중요화학공업품/중요기계기구(부품)/기타 총독이 지정하는 군수물자 생산 사업 등이었다. 이후 조선에

35) 『毎日申報』 1933. 8. 12., ‘都市計劃令適用을 豫想하는 釜山府 工場과 危險施設은 西面に 指定 府와 道保安課調査’.

36) 김인호,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192~197쪽.

37) 박섭,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개발 구상, 1915-1937:결절점 지위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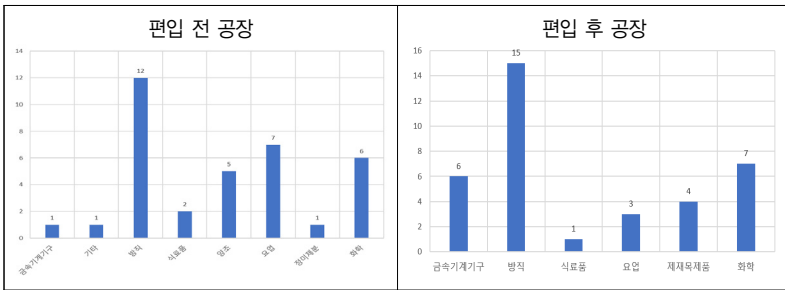
38)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143~146쪽.

39) 김인호, 위의 책, 2000, 148쪽.

「군수회사법」이 적용되고 난 후 1944년 12월 8일 1차로 55개 업체가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⁴⁰⁾

다음으로 편입 전후 서면에 설립된 공장을 중심으로 그 업종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편입 전후 업종별 공장 설립 현황



*출처: 『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비고: ①제조업체만 표기함. ②중복되는 것은 제외함. ③합명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어도 소재지, 대표 등이 동일하면 같은 회사로 정리하였음.

<그림 4>를 보면 편입 전 주로 방직과 염색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조, 화학 등 업체의 설립이 많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방직의 경우 주로 취급 품목은 각종 마직물(광당포, 북포, 마포), 면포, 교직물(견마교직, 인견교직), 인조견, 정련정리 및 표백, 염색 등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찍부터 조선의 저렴한 잠견과 생사가 일본의 생사관련 대외무역에서 불리한 점을 완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였다.⁴¹⁾ 부산부는 노동력 확보·생산물 유통 등에 유리하여 1917년부터 조선방직(주)이 서면 인근의 범일동에 설립되어 이후 이를 사용한 의류 업체도 증가했다.⁴²⁾ 이러

40) 『매일신보』 1944. 12. 8., 「軍需會社法 施行에 따라 다음과 같이 第1回 軍需會社 55社가 지정되다」.

41) 「朝鮮蠶業獎勵의 意義(上)」, 『每日申報』(1926년 4월 15일).

한 분위기에서 서면의 경우 1920년대 중반부터 방직 업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요업의 경우 주로 시멘트 제품, 벽돌, 지붕기와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았다. 요업은 1919년 무렵부터 등장하는데 주로 일상생활이나 편의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양조의 경우 주로 탁주생산업체가 주를 이루었다. 양조의 경우 『주세령』의 영향으로 조선 내 크고 작은 조선주제조장의 합동집약이 추진⁴³⁾되었고, 그 결과 1934년에는 1926년에 비해 주조업장이 1/30로 줄었다.⁴⁴⁾ 서면의 경우에도 크고 작은 업체들이 통폐합을 해갔다. 화학의 경우 주로 고무신, 고무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았으며 그 이외 동물 사육 및 매매하는 업체가 설립되었다. 이들 업체의 설립은 서면이 고무공업에 유리한 기후조건⁴⁵⁾, 부산항과 경부선, 동래선을 통한 물자유통, 시장개척이 유리⁴⁶⁾ 했던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편입 후에도 방직과 화학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으나 주요 생산품은 변화가 있었다. 방직업의 경우 끈 실(撚絲, 縫絲), 낙면, 재제견사(再製絹絲), 포단면(蒲團綿), 화약면, 혼방직물, 인견, 백목면, 스f, 형겔(小布)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화학의 경우 여전히 고무제품을 비롯하여 印染 가공, 도료·유지 등을 취급, 특히 1940년대 들어와서는 도토리 가공(전시 주요약품 및 소주·식량원료), 연탄, 조선산 원료에 의한 제약

42) 박섭, 앞의 논문, 2014.

43) 총독부에 의한 조선주제조장 합동집약으로 1925년에는 1916년에 비해 탁주제조장은 47.47%, 약주제조장은 18.42% 줄었다(『第四章 第二節 酒類の取引, 『朝鮮酒造史』, 財團法人 朝鮮酒造協會, 1935, 51쪽, 大正午年以降酒類製造場數表 참고). 그리고 국자제조장의 경우 1928년 2,466개소에서 1929년 786개소로 31.87% 줄었다(『第六章 第三節 麴子』, 『朝鮮酒造史』, 財團法人 朝鮮酒造協會, 1935, 154쪽; 『第一章 第二節 時代に依る變遷』, 『朝鮮酒造史』, 財團法人 朝鮮酒造協會, 1935, 14쪽).

44) 『第一章 第二節 時代に依る變遷』, 『朝鮮酒造史』, 財團法人 朝鮮酒造協會, 1935.

45) 『부산의 부산 동구이야기』, 부산광역시 동구청, 2016, 294쪽.

46) 주익중,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고무공업의 전개』, 『경제사학』 22, 1997.

및 공업연구 감정, 조연제 및 분사기, 무연탄 완전연소기 등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편입 후 금속기계기구 업종이 증가하였는데, 조명용 기계기구, 꼬마전구, 방직기계 및 부품류, 철물기계 부속품, 스포이드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한편 제재목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주로 전주, 침목, 판재, 처리목재, 만각류(挽角類) 등의 품목이었다. 제재목제업의 등장은 편입 후 각종 인프라 확장에 따라 토목용 목재의 필요도 증가했고 1939년 무렵에는 판재의 수요가 급증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⁴⁷⁾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총독부는 생산력확충이나 산업물자사용제한, 배급조치 대상물자의 지정 등을 하였다. 이에 금, 철강 및 제철용 원광, 비철금속류(동·납·아연·주석·니켈·안티몬·수은·알루미늄·마그네슘 등), 벤젠 및 톨루엔, 페놀, 황산암모늄, 펄프, 공장기계, 석탄, 석유 및 석유대용품, 철도차량 및 선박, 화물자동차, 항공기 등의 품목이 생산 촉진 또는 생산력확충이 긴요한 중요물자로 지정되었다. 또 사용 제한 및 대용품 사용을 촉진할 물자로 鋼材, 동·백금·납·아연·주석·니켈·안티몬, 고무, 피혁, 면화, 양모, 종이류, 목재, 연료 특히 석유 및 석유대용품, 전력 등 10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총동원 물자로는 병기·합정·탄약·기타 군용 물자,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피복·식량·음료 및 사료, 동 의약품·의료기계 기구·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축 위생용 물자, 동 선박·항공기·차량·말·기타 수송용 물자, 동 통신용 물자, 동 토목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동 연료 및 전력, 지정 물품의 생산·수리·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기타물자, 칙령으로 지정한 물자 등이었다.⁴⁸⁾ 편입 후 서면 일대에 설립된 사업체의 생산 품목을 고려하면 전시경제

47) 『東亞日報』 1939. 3. 7., ‘需要増, 供給不圓滑로 木材價格이 大暴騰 角材三割, 板材二割, 外國品卅五割騰, 總督府 抑制策講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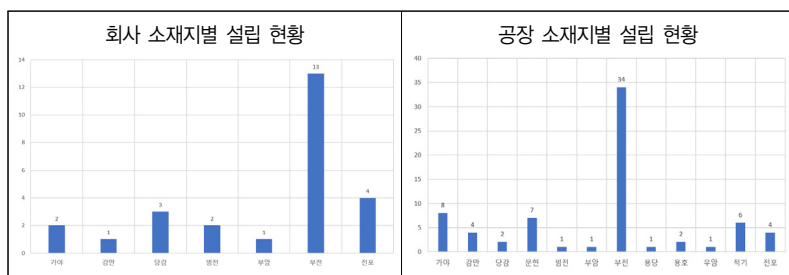
48)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에 편승 가능성이 높거나 편승한 업체가 많이 등장했다. 요컨대, 편입 후 서면 지역의 사업체 설립이 급증하였으며 업종의 경우에도 전시통제 경제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 소재지별(부전, 가야 제외) 사업체 설립 현황

서면 편입 전후 사업체 설립을 소재지별로 보면 <그림 5>와 같다.⁴⁹⁾

<그림 5> 1914년~1945년 서면 사업체 소재지별 회사·공장 설립 현황



*출처: 『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비고: ①제조업체만 표기함. ②중복되는 것은 제외함. ③명칭으로 회사·공장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가 다르면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였음. ④설립직후 이전한 경우 제외함.

우선 <그림 5>에 의하면 서면에서 회사는 32개 사 중 부전리에 16개 사(50%)가 설립되었고 다음으로 전포리 5개 사(15.63%), 당감리·가야리 각 3개 사(각 9.38%)가 설립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암리 2개 사(6.25%), 감만리·범전리 각 1개 사(각 3.13%) 순으로 설립되었다. 공장의 경우 전체 64개 소 중 부전리 33개 소(51.56%), 가야리·문현리 각 7

49) 서면은 1914년~1936년 동래군으로 존재하다가 1936년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편입 전 서면 관할 ‘포’는 크게 변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서면 관할 지역은 편입 전 서면 관할 지역으로 한다.

개 소(각 10.93%), 적기통 5개 소(7.81%)에 많이 설립되었다. 그 다음으로 전포리 3개 소(4.69%), 감만리·당감리·용호리 각 2개 소(각 3.13%), 범전리·부암리·우암리 각 1개소(각 1.56%) 순으로 설립되었다. 회사와 공장을 망라하여 부전리(49개 처)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체가 설립되었고 다음으로 가야리(10개 처), 전포리(8개 처), 문현리(7개 처), 적기통·당감리(각 5개 처), 부암리·감만리(각 3개 처), 범전리·우암리(2개 처) 등 순으로 설립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재지별 사업체에 현황을 편의상 서면 북부지역(전포, 당감, 부암, 범전)과 서면의 동남쪽 적기반도 일대(문현, 우암, 적기, 감만)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부전리, 가야리는 별도로 서술함으로 제외하였다. 먼저 서면의 북부지역의 사업체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포리의 경우 편입 후에 1939년 이후에 사업체 설립이 많았는데 전포리에 설립된 사업체의 62.5%에 달했다. 편입 이전 전포리에는 1920년대 초부터 사업체 설립이 있었다. 각종 연화석, 토관, 와, 소주병, 시멘트 제품 등을 제조, 판매 釜山窯業(주) 및 제와공장(1921), 동물 사육·매매하는 釜山動物化成(주)(1921), 종이 제조·판매하는 釜山共同製紙所(1929)가 설립되었다. 부산요업(주)은 1920년 2월 1일 대청정 1정목 33에 설립되었다가 1921년 9월 3일 서면 전포리 391로 이전 등기하였다.⁵⁰⁾

편입 이후 전포리에는 실·직물제조, 어망 및 어구, 면화, 양모, 인조섬유 원료, 염료 등을 가공하고 매매하는 업체인 森林産業(주)(1939년), 포도주·각종 소스, 과자 등 식료품을 제조하는 辰馬商事(주)(1940년), 낙면을 취급하던 朝日製綿所(1940), 면류의 가공 제조·판매하는 朝鮮

50) 『조선총독부관보』(「회사설립허가:부산요업주식회사」, 1919년 10월 30일, 제2166호 10면; 「부산요업주식회사」, 1920년 2월 18일, 제2253호 16면; 「부산요업주식회사(본점이전)」, 1921년 10월 15일, 제2754호 9면).

製麵(주)(1941년), 도토리 가루 및 탄닌 제조, 기타 가공 및 판매, 산림물 산 가공 판매 등을 취급하던 朝鮮トングリ(주)(1941)가 설립되었다. 조선톤구리(주)는 처음 1941년 12월 4일 대교통 1정목 65에서 설립되었는데, 이후 전포리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⁵¹⁾ 이후 1944년 명칭을 東和工業(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진마상사(주)는 설립한 그 해 전포리에서 초량 174로 이전하였다.

당감리는 정부선을 중심으로 가야리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당감리 역시 편입 후에 사업체 설립이 많았으며 편입 전 무지 염색, 인견포 등 각종 식물 염색 가공 위탁, 식물 제조 및 판매하는 丸和工業(주)(1935)이 설립되었다. 편입 후 압축산소를 주로 취급하는 帝國酸素(주) 釜山工場(1938) 이 설립되었다.⁵²⁾ 제국산소(주)는 평양에도 공장을 설립하여 산소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 이외 국가·현수막·기타 인쇄염, 가공품 전반의 제조 및 판매, 각종 식물 염색 가공·프로세스 가공의 위탁 및 판매를 하는 旭染工(주)(1940), 외국용 및 국내용 양산, 부품을 제작하는 塩山金屬工業(주)(1942) 등이 설립되었다.

부암리는 편입 전에는 건직물의 제사업, 각종 유리한 가내공업 장려 사업을 목적으로 한 朝鮮工藝(주)(1935)가 설립되었다. 편입 후에는 각종 면 및 침구류 제조판매, 탈지면 및 봉대재료의 제조판매, 동일 목적의 회사에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ニシキワタ(주)(1939)⁵³⁾가 설립되었다. ニシキワタ(주)는 최소 1945년 1월까지도 운영되었다.⁵⁴⁾

범전리는 동해남부선 부전역을 사이에 두고 부전리와 면해있는 곳으

51) 朝鮮トングリ(주)는 1942년 1월 관보에 의하면 1941년 12월 4일 대교통에서 설립되었는데, 1942년 9월 조사된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의하면 본점 주소지가 전포리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처음 대교통에 설립되었다가 이후 전포리로 이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トングリ』, 『조선총독부관보』(1942년 1월 14일, 제4487호, 11면).

52) 『조선공장명부』 1940년 판, ‘화학공업:帝國酸素(주) 釜山工場, 平壤工場’.

53) 『조선총독부관보』 1939. 5. 1. 3680호, 9면, ‘설립:にしきわた株式會社’.

54) 『조선총독부관보』 1945. 1. 16. 5381호, 5면, ‘변경:にしきわた株式會社’.

로 1936년 이후 부산항의 배후 군용지로 이용된 곳이다. 1930년에 설치된 경마장은 1937년 ‘일본군 10288기마부대가 설치되어 군사용 마필 훈련을 지원, 1941년 이후 제72병참경비대가 설치되어 군수물자 수송의 안전을 확보, 1942년 임시군속훈련소 설치, 이후 일본군 군수품 야적장으로 활용’ 되었다.⁵⁵⁾ 편입 전 범전리의 사업체는 정미 및 麥搗業, 도정업, 잡곡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西面精米所(합명)(1934)가 확인된다. 서면정미소는 1934년 설립되었다가 1943년 11월 28일 해산되었다.⁵⁶⁾ 편입 후에는 각종 연필을 제조 판매하는 朝鮮鉛筆(주)(1944)가 설립되었다.

다음으로 서면의 동남쪽 적기반도 일대의 사업체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현리의 경우 문현리 설립 전체 사업체의 57.14%가 편입 이후에 설립되었다. 편입 이전 문현리의 사업체는 192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공장이었다. 편입 이전 精練整理 및 표백을 주로 취급한 丸和漂白染色工業所(1927), 탁주를 생산하던 荒嶺釀造場(1931), 새끼줄을 생산하던 小田製繩工場(1935)이 설립되었다. 편입 이후에는 고무제품을 생산하던 和成ゴム製造工業所(1939), 낙면을 취급하던 丸金製綿所(1940), 시멘트 기와를 취급하던 桐岡セメント瓦工場(1940), 방적 낙면, 각종제면, 인견, 인공섬유, 신흥직유, 기타 각종 실 및 포를 가공하고 판매하던 池田富製綿所(1941)⁵⁷⁾ 등이 설립되었다. 특히 池田富製綿所는 가야리의 이케다토미 표백공장과 같은 업체로

55)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https://www.citizenpark.or.kr>), 1942년에는 부산부가 요새지로 설정되고 병참기지 역할이 강화되면서 부산으로 각종 부대가 이전해왔다. 부전지구와 범일지구에는 요새시대 중포병대를 비롯한 각종 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보부산상주반(독립자동차 獨立自動車 제300중대 일부, 302중대), 부산육군 수송 통제부(독립자동차 제 299중대, 군품 본창本廠 부산출장소, 병기 행정본부 부산출장소, 양말본창 부산출장소, 피복본창 부산출장소, 위생재료본창 부산출장소, 수의재료본창 부산출장소)등이다(김경남, 앞의 논문, 15·31쪽).

56) 『조선총독부관보』 1944. 2. 5. 5100호, 12면, ‘해산 및 청산안(合名會社西面精米所)’.

57) 『조선총독부관보』 1940. 12. 26. 4179호, 30면, ‘상호설정:池田富映製綿所’.

가야리에 표백 공장 설립 직후 문현리에 제면, 낙면, 인공섬유 제조업체를 설립한 것이었다.

우암리는 전통적으로 자연포구가 있던 지역으로 일찍부터 이출우검역소(1911)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사업체는 1939년에 확인되는데 三菱系 회사로 연탄 제조판매, 무연탄 판매를 주로 하는 朝鮮煉炭(주) 부산 공장(1939)이 설립되었다. 감만리의 경우 편입 전에는 보통연와를 생산하던 伊藤煉瓦工場(赤峙煉瓦工場)(1919)가 설립되었다.⁵⁸⁾ 편입 후에는 풍로(焜爐)를 제조하던 三和化學工業社(1939), 각종 도로 및 유지 가공의 제조 판매를 주로 하던 朝鮮塗料油脂(주)(1940)가 설립되었다.

적기통은 오늘날 감만동, 우암동 일부로 적기만이 매립되고 새롭게 조성된 시가지였다. 편입 전에는 구충제를 제조 판매하는 제약업체인 由岐衛生化學試驗所(1927)가 설립되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구충제는 1940년 중국 텐진(天津), 무단장(木丹江), 평톈(奉天) 등 지역에 수출되었다.⁵⁹⁾ 그 이외 업체는 모두 편입 이후에 설립되었다. 토목 건축용 기계를 취급하던 中西鐵工營業所(1940), 日本木材(주) 釜山工場(1940), 東亞藥化學工業(주) 赤崎工場(1941), 若狹材木店(주) 製材工場(1941)가 설립되었다.

일본목재(주)는 1939년 경성부 황금정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성진(육정)과 적기에 공장을 설립하였다.⁶⁰⁾ 주로 목재 방부 注藥 업무, 목재의 가공 및 판매, 임업 경영, 목재 수륙 수송업(단,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수송업은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東亞藥化學工業(주)는 1940년 3월 부산부 영정에 설립되었다가 이후 대창정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⁶¹⁾

58) 伊藤煉瓦工場, 赤峙煉瓦工場은 회사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설립연도가 1919년, 대표자가 伊藤國太郎 동일하고 주요 생상품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업체로 판단된다.

59) 『釜山日報』 1940. 4. 7., ‘중국의 파리 퇴치; 부산의 하이나신[ハイナシン] 진출’.

6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1년 판, 1942년 판, 『日本木材工業(株)’.

6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1년 판, 1942년 판, 『東亞藥化學工業(株)’.

동아약화약공업(주)는 제약 및 화학 공업, 조선산 자원에 의한 제약의 연구 및 장려,약품 약제 위생 재료 화학 공업품의 연구 감정 및 그 사업화,약품 화학공업품의 중개 및 판매, 조선 내 소비 중요 의약품의 제조에 의한 자급 충족, 특히 자가 제품의 제3국향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업체의 적기공장 소재한 곳은 적기통 4정목 4로 1927년 설립된 유기위생화학시험소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시험소에서 회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약협재목점(주)은 1935년 3월 영정에서 설립된 후 함경도 웅기에 지점을 설치하고 적기에 공장을 두었다.⁶²⁾

그 이외 용호에도 사업체 설립이 있었다. 용호는 전통적으로 분개염전이 있던 곳으로 이곳에는 일찍부터 일본인 운영의 재제염업체가 있었다. 1906년 白石製鹽工場이 설립되었고 이후 1917년 後藤製鹽工場이 설립되었다. 이들 업체는 식염, 재제염을 생산하였고 백석제염공장의 경우 1915년 부산부로 진출하였다.⁶³⁾

이상 부전리, 가야리를 제외한 편입전후 서면의 사업체 현황을 보면 서면 북부 지역은 1939년 이후부터 사업체 설립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부선, 동해남부선 주변으로 사업체 설립이 많아지고 있었고, 철도 주변으로는 군용지로 이용되었다. 서면의 동남부 지역의 경우 부산진, 적기 매축이 진행되고 임항철도가 건설되는 시기 사업체 설립이 많았다.

3. 부전리, 가야리 사업체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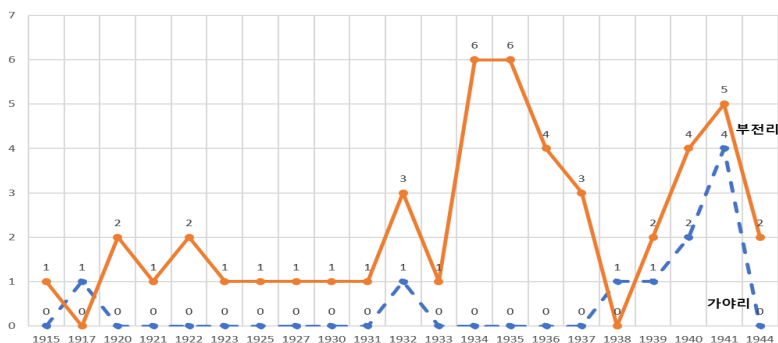
사업체 설립이 가장 많았던 부전리, 가야리는 동해남부선과 경부선이 각각 지나며 ‘항만-철도’를 통해 조선의 동해안 및 내륙 각지를 비롯

62) 『조선총독부관보』 1940. 2. 17. 3921호, 16면, ‘결산보고:若狹材木店(株)·

63) 『朝鮮工場名簿』 1932년 판, ‘白石製鹽工場, 白石製鹽所’.

하여 중국까지 이어지는 교통연선에 위치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1940년대 이후 사업체 설립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전력증강 업체들도 설립되고 있다. 특히 서면 편입 이후 부산부는 병참기지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장 사업체 설립이 많이 나타난 부전리, 가야리를 통해 서면의 공업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14년에서 1945년 각 시기별 부전, 가야의 사업체 설립을 정리하면 <그림 6>와 같다.

<그림 6> 1914년~1945년 부전리, 가야리 사업체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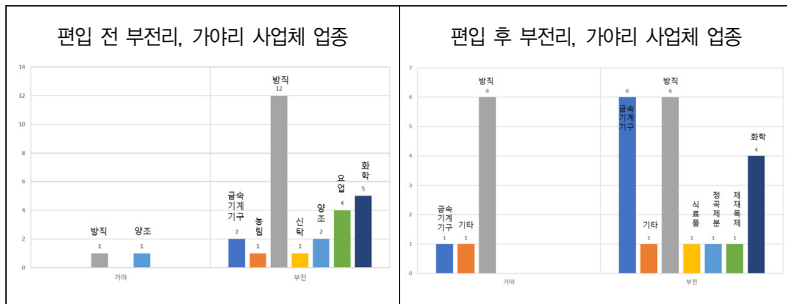
*출처:『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그림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부전리의 경우 편입 전 27개 업체가 설립되었다가 편입 후 다소 줄어 20개 업체가 설립되었다. 부전리의 사업체는 1934년, 1935년 시기 급증했는데 이는 서면의 부산부 편입에 따른 영향이었다. 부전리는 1936년 서면의 부산편입 당시 중점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던 곳으로 일찍부터 부산시가지계획에 따른 토지구획·도로망 정비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한편 사업체 설립이 193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산항의 병참기지 중요성이 확대된 것의 영향이었다. 부산부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부산요새지로 설정되었고 요새지로서 군수시설 및 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이 요구되었다.⁶⁴⁾

가야의 경우 편입 전 2개 업체가 설립되었으나 편입 후 8개 업체가 설립되어 사업체 설립이 4배 증가했다. 가야리에 사업체 설립이 급증하는 시기는 1941년으로 부산부의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던 때였다. 가야리는 편입 전 서면 관할의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체 설립이 작았으나 편입 후 사업체 설립이 증가하면서 가야리에 설립된 전체 사업체 수가 부전리에 다음으로 많이 설립된 것이었다. 이는 일제 말기 기업체의 진출지로 가야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1944년 가야리는 ‘ 전력증강 생산공장 및 기타의 진출로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⁶⁵⁾ 한편 서면 편입 전후 부전, 가야에 설립된 사업체의 업종을 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1914년~1945년 서면 지역 회사·공장의 주요 업종



*출처: 『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비고:<그림 7>은 회사와 공장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64) 『八個邑을 新說 釜山과 馬山兩府는 區域을 擴張 躍進하는 兵站半島一日부터 實施』, 『每日申報』(1942년 10월 1일), 『부산요새사령부』,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65) 『부산일보』 1944. 2. 22., 膨れた伽倻里 파출소 등 요망.

<그림 7>에 의하면 부전리의 경우 편입 전 방직, 화학, 요업, 금속기계기구, 양조, 농림, 신탁 업체가 있었다가 편입 후에는 방직, 금속기계기구, 화학, 제재목제, 정미제분, 잡업, 식료품 등의 업종이 설립되었다. 방직의 경우 편입 후 설립이 줄었으나 여전히 부전리에 설립된 업체 중 가장 많았으며 주로 마직물, 제면, 교직인견, 인견, 견포, 견마교직물, 타올 등을 취급했다. 화학의 경우 고무제품과 연료 보조제 푸르삼 및 분사기 생산과 관계된 업체가 설립되었다. 금속기계기구의 경우 편입 후 설립이 6배 증가하였는데, 방직·직물기계 및 부속품을 취급하거나 꼬마전구, 낚시바늘 등을 제조하는 업체였다. 그 외 판재, 판류, 만각류, 기타 목재 등을 취급하는 제재목제업이나, 정곡제분, 석재 등을 다루는 업체가 생겼다.

전쟁이 심화되면서 석탄, 곡물, 내화벽돌, 인견사, 인조섬유, 침목, 전주 등의 자급률이 떨어졌다.⁶⁶⁾ 1944년 총독부의 공업화 논리는 설비확장에 의한 생산력확충에서 기존 설비 내에서 생산력 증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재목제, 정미제분, 인견사 및 인조섬유 등 생산업체의 등장은 부전리 지역 사업체의 전시편승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야리의 경우 편입 전 확인되는 업체는 방직(광목, 당목, 북포, 마포 등), 양조(탁주)업체로 2개 처였다. 그러나 편입 후 회사의 설립이 8배 증가하였는데, 방직업 설립이 6배 증가하였고 금속기계기구, 기타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방직의 경우 마직물, 인견과 같은 직조물뿐만 아니라 양말, 장갑, 피복, 메리아스, 타올 등을 생산하거나 화약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설립되었다. 금속기계기구의 경우 주강(캐스트 스틸), 주철(무쇠), 단강(강철)품의 제조·공작수리 판매, 선박·함정·토목수리·광산·요업·청도·전기 등에 관련된 업체였다. 1944년 가야리가 ‘전력증강 생

66)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1997, 297쪽, <표2-41> 참조.

산공장 및 기타의 진출로 나날이 발전’한다는 당시 신문 기사를 볼 때, 가야리에 설립된 업체들은 군수물자 생산시설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⁶⁷⁾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케다토미 표백공장 생산의 ‘화약면’으로 화약면은 일명 솜화약으로 솜을 황산과 질산의 혼합액에 적셔 만든 화약류이다. 한편 금속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업체의 생산물의 경우 총동원 물자이자 사용 제한 및 대용품 사용 촉진 물자에 속하였다.⁶⁸⁾

부전리, 가야리에 공업의 전시체제화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것은 사업체의 분포도로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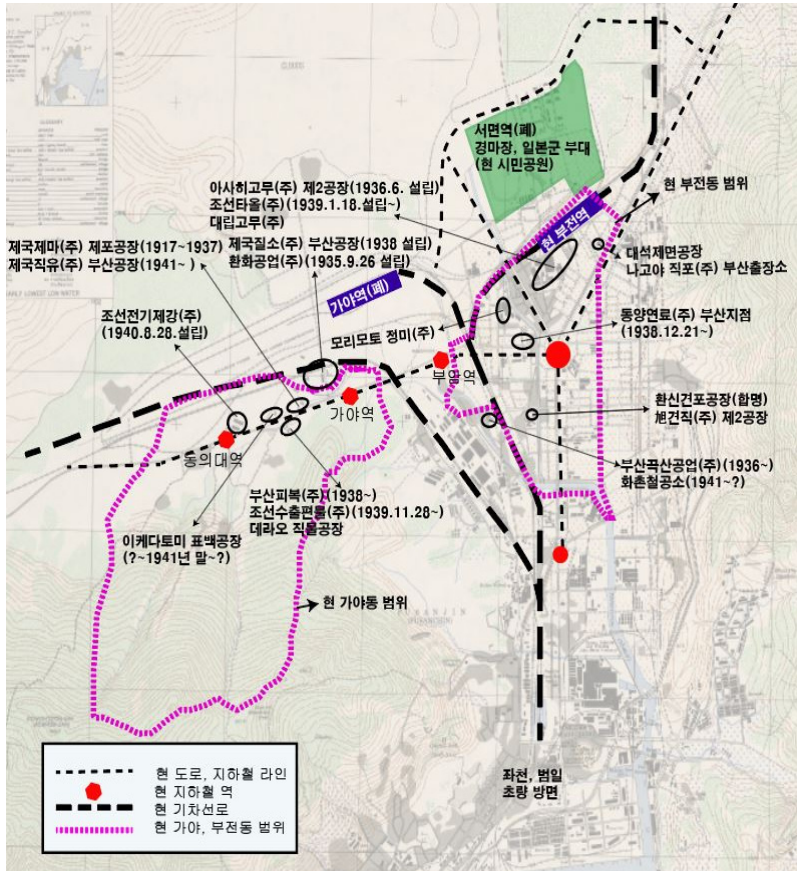
<그림 8>에 의하면 부전, 가야지역의 사업체는 대로변 및 화물 수송에 유리한 기차역 주변에 설립되었다. 지도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립 위치가 구체적으로 비정되는 업체는 대립고무(주), 아사히 고무(주) 제2공장, 모리모토정비(주), 동양연료(주) 부산공장, 부전철공소, 조선타올공업(주), 대석제면공장, 환신견포공장(합명), 아사히(旭)견직(주) 제2공장, 나고자 직포(주) 부산출장소, 화춘철강소 등이다. 이들의 위치는 현 부전역, 부산진 방면에서 동래, 구포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결절지, 일본군 주둔지(현 부산시민공원) 등에 인접하여 있다. 부전역은 1938년 부전리 일대의 구획정리와 함께 부산진-거제리 구간의 직선화하면서 1943년부터 서면역의 기능을 대신하였다.⁶⁹⁾ 동해남부선은 여객과 함께 화물운송이 이루어졌고 부전지역에 설립된 사업체는 군부대 관련 인력, 각종 물자집산, 물류 수송에 유리한 교통 편리성이 확보된 지역에 위치하였다.

67) 『부산일보』 1944. 2. 22., ‘膨れた伽倻里 파출소 등 요망’.

68) 김인호, 앞의 책, 2000.

69) 현재 부산시민공원 과 접한 ‘동평로’는 부산진-거제리 구간의 직선화 이전에 철로로 서면역은 이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1936년 부산부 편입 이후 부전리, 서면리 일대의 사업체 분포



*출처: 『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비고: ①사용된 지도는 1945년 생산된 것으로 도로, 지리 등은 1940년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1940년대 설립된 사업체를 비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사용함. ②지도에 표기한 도로, 기차역 등 표기는 사업체 위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일제강점기 부전리, 가야리의 주요 지역은 해방 후 부전동, 가야동과 큰 차이가 없음. ③사업체의 경우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폐쇄지적도>, <구토지대장> 등을 통해 지번 변동을 확인하고 KAKAO지도를 이용해 대략적인 위치를 비정함.

가야 지역의 사업체는 부산진-구포로 이어지는 대로변과 경부선 가야역과 사상역 사이 열차선로와 인접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위치가 비정된 업체는 환화공업(주), 제국질소(주) 부산공장, 제국제마(주) 제포공장, 제국직유(주) 부산공장, 부산피복(주), 조선수출편물(주), 데라오직물공장, 이케다토미 표백공장, 조선전기제강(주)이 있다. 이들 업체와 인접한 가야역은 ‘1940년 철도국이 1,700만 원을 들여 건설한 곳으로 주변 기차역을 지나는 객차·화차를 정리, 관리하는 곳’으로 1944년 조선 3대 조차장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⁷⁰⁾ 가야선 조차장을 중심으로 동해남부선과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는 곳으로 부전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산진-동래, 부산진-구포를 잇고 항만으로 이어지는 교통결절지이다. 가야지역에 설립된 업체와 가야역 조차장 등을 고려하면 이곳은 사업체에서 생산된 물자의 수송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보인다.

요컨대, 부전, 가야에 설립된 사업체는 1939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시 통제물자이지만 일상생활에 소비되거나 전시 편송 가능성이 높은 물자를 취급하는 업체가 많았다. 부전의 경우 부산시가지계획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정비 대상이 된 지역이다. 가야의 경우 부전과 같이 부산부 편입 단계부터 집중 정비지역은 아니었지만 1943년 조차장 가야역의 개통 전후 군수업체 및 군수필요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군수동원 가능 업체가 집중설립되었던 지역이다. 또 부전리, 가야리에 설립된 사업체 위치는 ‘부산진-구포-동래-항만’을 잇는 교통 결절지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의 이동도 빈번한 곳이다. 부전지역은 여객과 화물의 수송, 가야지역의 경우 군수업체를 비롯하여 방직제조벨트가 형성되어 전시 물자생산과 수송에 유리한 공업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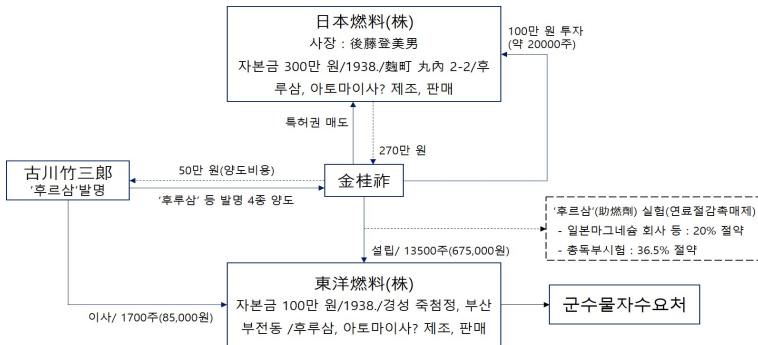
70) 『동아일보』 1940. 1. 26., ‘三大操車場建設 水色 釜山 平壤에 有數한 操車場, 三年間 四千三百萬圓 豫算’.

Ⅳ. 부전리, 가야리의 공장 실태

1. 부전리 사례 : 東洋燃料(주) 부산공장

부전지역에 설립된 대표적인 전시 협력 업체는 동양연료(주) 부산공장이다. 동양연료(주)는 1938년 12월 21일 경성부 축척정 2정목 131번지에 설립되었다. 설립시 자본금 1백만 원으로 후루삼 및 아토마이사(분사기?)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39년 부산부 부전리 482번지에 부산지점을 설치하였다. 동양연료(주) 부산공장의 위치는 현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맞은편 일대로 추정되는데, 부전역-부산진, 부전역-구포 방면을 비롯하여 동래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였다.⁷¹⁾ 이 업체의 설립 과정은 친일조선인을 매개로 일본 재벌기업이 조선에 진출하는 과정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9>과 같다.

<그림 9> 동양연료(주) 설립 과정 추정 도식화



*비고: 본 그림은 동양연료(주) 설립자 김계조에 대한 당대 자료 및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71) 패쇄지적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지번이 남아있지 않아서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한다.

이 업체의 대표는 조선인 金桂祚로 회사 설립 당시 ‘국책회사에 등장한 재계거성’ 중 한명으로 표현된다.⁷²⁾ 김계조가 동양연료(주)를 설립한 것은 일본 정계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들이 영향을 주었다. 김계조는 자신의 심문조서에서 김해 출신으로 소학교를 다닌 후 14세에 일본에 도항하여 큐슈에서 우유배달원, 세탁소 점원, 뱃푸에서 2년간 포목점 점원·마츠모토 운영 염색공장, 히로시마에서 6·7년간 조선술 딜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⁷³⁾ 다른 기록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⁷⁴⁾ 김계조가 히로시마에서 운영했던 조선약주회사의 창립에 일본 국회의원 및 정계원로, 전 문교상 등이 축하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⁷⁵⁾

김계조는 조선에 온 후 동양척식의 방계회사인 회문탄광에 관여하였다. 이후 함북의 6개 탄광을 합쳐 광산 업계에서 입지를 넓혔다. 회문탄광(주) 상무취체역으로 연료공업에 종사하였으며 부산에서 조선연료문제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연료연구자로 알려진 古川竹三郎은 「푸르삼」이라는 화학약품을 석탄에 뿌리고 피우면 화력이 강하게 되어 에너지를 20% 절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 古川竹三郎과 김계조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김계조는 후루가와(古川)에게 50만 원을 주고 「후

72) 『삼천리』 11-4(1939. 4. 1.), ‘國策會社에 등장한 財界巨星’.

73) 정병준,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 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연구』 36, 2007, 37~42쪽.

74) 김계조에 관해서는 해방 후 이른바 ‘김계조 사건’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서적이 있다 (이용선, 『김계조: 최대의 탄광왕』, 『거부열전』 5, 상서각, 1976. 정병준,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 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연구』 36, 2007. 김기협, 『1부 박정희 시대, 협력과 갈등의 한일관계』, 너머북스, 2011. 김두식, 『법률가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이상호,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의 한미 이간 공작 음모」, 『한일민족문제연구』 37, 2019. 명순구, 「김용무」, 『애산학보』 47, 2020).

75) 정병준,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 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연구』 36, 2007, 37쪽(이용선, 위의 책).

르삼」을 비롯하여 발명품 4종을 소유했다.⁷⁶⁾

1930년대 일본 본토 자본의 조선 유치와 조선의 공업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1936년 조선산업경제조사준비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책 상 중요공업의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제안되었다.⁷⁷⁾ 이때 시험조사기관이나 발명장려기관 등 공업화에 필요한 준비기관을 구축하고 주요 공업에 대한 특별 진흥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계조는 「푸르삼」의 특허권을 근거로 三井계에서 270만 원을 지원받았다.⁷⁸⁾ 김계조는 미쓰이계로부터 받은 금액 중 100만 원은 일본연료(주)에 투자하였고 그중 일부는 동양연료(주)를 설립하고 古川에게 발명품을 사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연료(주)는 주식 2만 주의 회사로 김계조가 대표이면서 주식 13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古川이 7500주, 김용주, 박원빈이 각 2천 주, 7백 주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김계조는 古川이 가진 기술을 근거로 미쓰이계에 투자를 받았고 그중 50만 원을 古川에게 지급하고 100만 원은 일본연료(주)에 투자하고 67만5천 원은 동양연료(주)를 설립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체제가 되자 일본 본토에서는 그간 에너지 자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던 석탄 자원을 원활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39년에서 1941년 제1차 생산력 확충계획기간 동안 조선에서 생산된 석탄 20-40%가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석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1942년부터 증산책을 펴하였고 제2차 생산력 확충기간 동안 석탄의 생산은 증가했다.⁷⁹⁾ 그러나 1944년 무렵 석탄 생산량은 줄어들고 78%의 부족률을 보이는 등 자급률 떨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석탄 연료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연제 「후르삼」을

76) 『삼천리』 11-4(1939. 4. 1.), ‘國策會社에 登장한 財界巨星’.

77) 김인호, 앞의 책, 2000, 63쪽.

78) 『삼천리』 11-4(1939. 4. 1.), ‘國策會社에 登장한 財界巨星’.

79)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1997, 312쪽.

제조·판매하는 동양연료(주)가 설립된 것이었다. 전시상황 아래 동양연료(주) 후르삼은 일본마그네슘(주)를 통한 시험에서도 20%, 총독부 실험에서도 36.5%의 에너지 절감 효과의 결과를 보이며 전시 에너지 대책에 기대감을 주었다.⁸⁰⁾

김계조는 동양연료(주) 설립 이외 森本정미(주)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산둥성(山東省)의 무쇠, 텅스텐, 제분(製粉)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지기업회사를 세워 칭다오(靑島)의 동아상사(東亞商事)를 매수 합병하는 등 활동도 했다.⁸¹⁾ 동양연료(주)의 설립 과정과 김계조의 기업 활동을 보면 소위 ‘일-선-만’을 잇는 경제블록 속에 적극적으로 전시에 편승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체의 모습과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2. 가야리 사례 : 朝鮮電氣製鋼(주)와 방직제조업군

가야지역 사업체 설립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수회사법」에 의한 군수회사 제2차 지정 대상 업체의 설립과 함께 방직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군수회사지정 대상 업체는 조선전기제강(주)이다. 이 업체는 조선중공업(주)과 일본고무(주)가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도선용 사우트와 기타발동기 부품 등을 스크래프에 의해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⁸²⁾ 이후 전시 경제 통제에 의해 당초 계획보다 늦은 1940년 8월 28일 부산부 가야리 256번지(현 부산 성안교회, e-편한세상 일대로 추정)에 자본금 2백 만 원의 회사로 설립되었다. 주로 주강, 주철, 단강품의 제조·공작수리 판매, 선박, 함정, 토목수리, 광산, 요

80) 『동아일보』 1938. 12. 14, ‘燃料節約新動向示現 助熱劑『품산』 總督府試驗에서 三割六分五釐의 節約率收得//人工木炭도 不遠企業化[尙: 金桂祚氏]’.

81) 『동아일보』 1938.7.30., ‘助熱劑를 發明하여 國策會社를 設立 金桂祚氏 苦心 努力’.

82) 『동아일보』 1940.3.16., ‘朝鮮電氣製鋼設立 釜山鎭工場設立’, 『부산일보』 1940.4.5., ‘조선전기제강 ;5월 중순 창립될까’.

업, 철도, 전기, 제철용제기계 및 그 외 부분품제작·수리판매, 기타 일반 기계·철강공작물 및 부분품 제작 수리 판매 및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업체다.⁸³⁾ 주주로는 조선중공업, 동척광업, 조선금속공업, 일본고무, 입석상점 등이 참여하였다. 이 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생산력확충의 긴요 물자, 총동원 물자에 속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이후 일본의 연이은 패퇴에 조선총독부는 동남아, 중국, 만주 일대로부터 공급받는 중요물자의 확보한 자급 논리를 강조했다. 그 실행 방향으로 통첩한 ‘전력증강 8대 시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5가지 ‘초중점산업(철, 석탄, 경금속, 선박, 비행기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물자 증산, 수송력 증강을 꾀하였다.⁸⁴⁾ 더욱이 『군수회사법』, ‘군수회사책임생산제’를 실시하며 민간 사업체에 전면적으로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조선전기제강(주)의 설립목적에서 보듯 이 회사의 주요 취급 대상은 『군수회사법』 적용을 받는 ‘병기·항공기·함정·선박·차량(부품)/철강·비철금속·경금속, 희귀금속·기타 중요광산물’의 대상사업에 속한다. 조선전기제강(주)이 설립 당초 조선중공업(주)의 방계회사로 군수 생산 목적이 주력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품을 보면 전시통제 하 사업체의 존속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전시 편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가야리에는 방직제조업이 일련의 벨트를 형성하여 물자 생산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었다. 조선전기제강(주)와 인접하여 제국제마(주) 제포공장 및 제국직유(주) 부산공장, 부산피복(주)와 조선수출편물(주), 이케다토미 표백공장, 데라다 직물공장 등이 접하거나 마주 보고 설립되어있다. 제국제마(주)는 일본 재벌 야스다계 업체로 1917년 설립되어 1938년까지 각종 마직물을 생산했으나 1937년 원료 부족으로 휴업에

83) 『朝鮮會社組合要錄』(1942년 판).

84)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1997, 141쪽, 재인용.

들어가게 된다.⁸⁵⁾ 제국제마(주)는 좁게는 부산부·동래군지역 내에 넓게는 조선 전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었다. 부산부에서도 가야에 직포 공장을 운영하였고 동래에서는 표백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1937년 이후 부산에서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뒤를 이어 설립된 것이 제국직유(주) 부산공장으로 제국직유(주)의 대표는 長野直市郎으로 제국제마(주) 제포공장 대표와 동일하며 주요 생산품도 마직물로 동일하다.

더욱이 제국제마(주) 부산공장 인접하여 이케다토미 표백공장이 있다. 이곳의 대표는 池田富映으로 가야의 표백공장을 설립한 후 곧이어 문현에 제면소를 설립하고 있다.⁸⁶⁾ 문현의 제면소에서는 방적 낙면, 각종제면, 인견, 인공섬유, 신흥직유, 기타 각종 실 및 포를 가공하고 판매하고 있다. 가야의 표백공장은 정련 및 정리 면포를 제조하고 화약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직조와 표백 등 일련의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시에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는 화약면의 생산을 고려하면 군수에 관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들 업체와 큰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곳은 부산피복(주)와 조선수출편물(주), 데라타 직물공장이다. 부산피복(주)와 조선수출편물(주)는 동일한 대표로 1938년 피복업체 설립 후 1941년에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피복(주)는 1938년 12월 피복, 피복제조판매, 피복생지 매매 및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41년 조선수출편물(주)가 확인되는데 이는 1941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루 피복류를 넘어서 양말, 장갑, 메리야스류, 타올, 기타 포면제품, 전구제조 및 가공 매매, 유리기구 제조 및 가공 매매와 그와 관련된 사업에 투

85) 『동아일보』 1937. 11. 30. ‘製麻工場休業으로 二百職工이 失業 원료부족으로 부득이 작업 중지 釜山帝國製麻會社’.

86) 『조선총독부관보』 1940. 12. 26. 4179호, 30면, ‘상호설정:池田富映製綿所’.

자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역시 마주하는 방직업체들과 연계를 통해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제조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1944년 가야리에서는 ‘전력증강의 생산공장, 기타의 가야진출’과 함께 우편국, 학교, 시장, 파출소 등 기관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⁸⁷⁾ 가야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번영회가 조직되는데, 번영회의 회장은 전기제강(주)의 전무였으며 부회장은 부산피복(주)의 사장과 ‘町’⁸⁸⁾의 대표였고 이사는 전기제강(주) 총무과장이었다. 당시의 가야리 번영회의 발회식을 위한 모임은 가야리 유지들이 발의하였고 관계 관청 직원들도 참석하였다. 이는 가야지역 주민과 업체 운영의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면서 공장 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었다.

V. 맺음말

이상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서면 지역의 부산부 편입 이후 공업화에 관하여 부전리, 가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6년 부산부에 편입된 서면은 『부산도시계획안』에 따라 개발되었고 부전리와 가야리는 전시 필요 물자의 생산·수송이 가능한 전력증강 공업지대로 형성되었다. 부전리는 부산부 편입 당시부터 집중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된 지역이었다. 가야리는 군수 증강 시설의 설립

87) 『부산일보』 1944. 2. 22., ‘『膨れた伽倻里 파출소 등 요망』.

88) 町會長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지역 명칭이 伽倻里에서 伽倻町 정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두 지역은 동해남부선의 부전역과 경부선 가야역과 면해있는 곳이다. ‘부산진-동래’, ‘부산진-구포’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결절 지역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유입과 수송에 편리한 곳이었다. 전쟁이 확대되고 부산항의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부전리와 가야리의 공업화는 전시 협력 또는 편승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설립이 많았다.

둘째, 서면의 사업체 설립은 1934~1936년, 1939년 이후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며 편입 후 사업체의 생산물자 역시 전시경제에 편입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었다. 서면 관할 지역 중 사업체 설립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전리, 가야리로 편입전후, 부산이 요새지로 설정되던 시기에 특히 사업체가 급증하고 있었다. 그 이외 서면의 북부지역(부암, 당감, 전포)과 동남부 지역(우암, 문현, 감만, 적기 등) 지역 역시 부산시가지계획, 부산진 및 적기만 매축, 임항철도의 부설 등의 분위기 속에서 사업체 설립이 많았다.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총독부는 생산력확충이나 산업물자 사용제한, 배급조치 대상 물자 등을 지정하였다. 편입 후 서면에 설립된 사업체는 방직, 금속기계기구, 화학, 제재목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전시 제한 물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폭탄으로 이용 가능한 화약면, 사용 제한 및 대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목재, 피복, 고무, 마직물, 연료보조제, 비철류 금속, 공장기계 등의 생산업체는 전시 편승 가능성이 많았다.

셋째, 부전리에 설립된 동양연료(주) 부산공장은 친일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과 일본 재벌의 조선진출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동양연료(주)를 설립한 친일 자본가 김계조는 일본에 체류할 당시 일본 정·재계 인물 및 연료보조제 발명가와와의 인맥을 이용하여 미쓰이 계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설립했다. 김계조가 연료보조제 개발자에게 특허권을 사서 미쓰이 계열의 투자를 받아 일본연료(주)에 투자하여 부사장

이 되고 조선에서는 동양연료(주)를 설립한 것이었다. 김계조는 동양연료(주) 설립 이외 森本정미(주)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산둥성(山東省)의 무쇠, 텅스텐, 제분(製粉)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지기업회사를 세워 청도(靑島)의 동아상사(東亞商事)를 매수 합병하는 등 활동도 했다. 동양연료(주)의 설립 과정과 김계조의 기업활동을 보면 소위 ‘일-선-만’을 잇는 경제블록 속에 적극적으로 전시에 편승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체의 모습과 일본 자본의 조선진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넷째, 가야리에 설립된 조선전기제강(주)는 「군수회사법」에 의해 군수회사 제2차 지정되었으며, 주변으로는 현지자급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방직제조공업군이 형성되었다. 조선전기제강(주)은 「군수회사법」 적용을 받는 ‘병기·항공기·함정·선박·차량(부품)/철강·비철금속·경금속, 희귀금속·기타 중요광산물’의 대상사업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다. 한편 주변의 방직제조업체들은 서로 인접하여 원료 가공에서 제품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들 사업체 주변 가야역의 경우 조차장 역할이 크고 철도차량의 관리뿐만 아니라 동해남부선과 경부선이 연결되는 곳이다. 때문에 가야리는 군수물자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 현지자급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하나의 군수물자생산벨트를 형성하기에도 유리하였다.

요컨대, 1936년 이후 「부산시가지계획」에 따라 편입된 서면은 부산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장지역 형성 이외 부산부의 병참기지로써 기능강화가 요구된 지역이었다. 서면의 여타 지역과 함께 부전리와 가야리는 서면 설립사업체의 전시 협력 또는 편승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 부족한 점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사업체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서면 관할 기타 지역, 인접한 범일·좌천 지역 등 미시사적 관점의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會社組合要緣』(각 년도 판.)
 『朝鮮工場名簿』(각 년도 판.)
 『東亞日報』
 『釜山日報』
 『釜山の産業』(1940, 1942)
 『삼천리』

2. 저서 및 논문

- 김경남, 「한말 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지역과 역사』 5, 1999.
 ———, 「1930년대 일제의 도시건설과 부산 시가지계획의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4.
 ———, 「1930년대 일제의 도시건설과 부산 시가지계획의 전개와 특질」, 『지역과 역사』 20, 2007.
 ———,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 연구』 34, 2009.
 김기협, 『1부 박정희 시대, 협력과 갈등의 한일관계』, 너머북스, 2011.
 김두식, 『법률가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김인호, 「1940년대 조선공업의 대외적 성격과 조선인 자본가의 중국 ‘침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2000.
 ———,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명순구, 「김용무」, 『애산학보』 47, 2020.
 박 섭,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개발 구상, 1915~1937: 결절점 지위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32-3, 2014.
 박영구, 「戰時期 부산 제조업회사의 성격 변화, 1937~1945」, 『지역사회연구』 16-2, 2008.

- _____, 「외부충격과 지역경제: 부산 제조업회사, 1908~1936」, 『연세경제연구』 15-2, 2008.
-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의 부산 동구이야기』, 2016.
- 부산근대역사관, 『근대 부산항 별곡』, 2016.
- 이상호,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의 한미 이간 공작 음모」, 『한일민족문제연구』 37, 2019.
- 이용선, 「김계조:최대의 탄광왕」, 『거부열전』 5, 상서각, 1976.
- 전성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확장의 식민성과 지역민의 동향-부산부 부역 1, 2차 확장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2016.
- _____, 「일제말기 臨港鐵道와 식민성」, 『한국민족문화』 671, 2018.
- 정병준,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 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연구』 36, 2007.
- 차철욱,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항도부산』 23, 2007.

투고일 : 2022. 05. 23. 심사완료일 : 2022. 06. 26. 게재확정일 : 2022. 07. 14.

부록 1. 1936년 전후 서면 설립 회사

소재	사업체명	업종(주요품목)	설립시기	주소	공장자본금	불입자본금	민족
부진	釜山窯業2	연와, 토판과, 소주병, 시멘트 제품 제조 판매	1920.2.1.	釜田 39	500,000	250,000	J
	特許セメント瓦製造工場2	시멘트 기와	1922	釜田	500,000		J
	釜山農業信託4	위탁 토지 경영 관리	1923.12.12.	釜田	10,000	10,000	J
	足達農園4	농림	1933.2.5.	釜田	4,400	4,400	J
	大石綿行3	제면, 탈지면 제조 판매	1934.12.17.	釜田 17	13,500	13,500	J
	丸新絹布工場4	생사 및 인견물 제조판매	1935.5.1.	釜田 239	70,000	70,000	K
	朝鮮金屬工業2G	각종 차량 기계기구의 제작, 수선, 판매, 자동차와 동 부분품 제작수리 등	1935.8.26.	釜田 359	500,000	500,000	J
	釜山穀産工業2	製飴業 및 원료 판매, 제과업 및 관련한 일체 업무	1936.4.5. 1937.1.5.	佐川町 576 釜田 460	100,000	25,000	K
	大立護謄2	고무화, 帆布靴, 기타 고무제품 일체 제조 판매	1936.6.22	釜田 340-2	100,000	100,000	K
	森本精米2	정미업 및 糠香油業, 미장곡의 매매 증개 및 위탁업, 운송업 및 창고업, 그에 관련한 부대사업	1937.1.18.	부진 406 좌면 68	250,000	250,000	JK
	富士不動産商事4	부동산의 매매, 부대 업무 일질	1937.8.17.	釜田 494-4	10,000	10,000	J
	丸新絹布工場4	생사 및 인견물 제조판매	1938.5.31.	釜田 239	70,000	70,000	K
	朝鮮タオル工業2	타올의 제조 및 판매,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1939.1.18.	釜田 335	180,000	90,000	J
	朝鮮毛織2	견, 인견 및 각종 섬유 교직물, 모직물, 모피, 섬유의 제조 및 판매, 각종 직물의 수탁 가공, 전 각호에 관계가 있는 업무의 경영 및 이것에 대한 투자	1940.9.9.	釜田 129 大廳 1丁目 35	1,000,000	1,000,000	J
	東洋石材工業2	석재장?의 제조, 석재장?의 판매, 석재의 가공?,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1944.6.24.	釜田 495-1	100,000	100,000	J
전포	寶生鐵工業2	무연탄 원전연소기의 제조, 무연탄 원전연소기의 판매, 기타 철공업,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1944.8.22.	釜田 495-1	100,000	50,000	J
	釜山動物化成2	동물의 化成 매개 및 그 부수되는 일반 업무	1921.4.13.	田浦 24	30,000	7,500	J
	森林産業2	각종 糸類 및 직물 제조 가공 매개, 어망 및 어구의 제조 및 가공 매개, 면화 羊毛 인조 섬유 원료 염료 장화의 매개 및 염색 가공 약품 식료품의 매개, 이상 각 항에 부대 관련하는 업무 및 다른 사업의 투자	1939.7.25.	田浦 748	750,000	495,000	J
	辰馬商事2	일본식 서양식 주류, 포도주의 罐頭판매 식초 소스 과자의 제조 및 음료수 및 식료품의 매개, 위에 딸린 일체의 업무	1940.4.5. 1940.7.10.	田浦 748 초량 174	25,000	25,000	J
	朝鮮製鐵2	면류의 가공 제조 및 이한 제품의 판매, 관련한 일체의 업무	1941.5.21.	田浦 711	100,000	25,000	J
	朝鮮デングリ工業2	도토리 전분을 이용한 소주, 약(조청) 등 전식 식료품 원료, 탄닌(전식 주요 약품)	1942.1.29. 1944.11.20	田浦 751 田浦	198,000 198,000	51,480 138,600	J
	東和工業2						J
당감	丸和工業2	각종 직물 염색 가공의 위탁, 각종 직물의 제조 및 판매	1935.9.26.	當甘 113	100,000	25,000	J
	旭染工2	국기 현수막 기타 印刷 가공품 전반의 제조 및 판매, 각종 직물 염색 가공 및 프로세스 가공의 위탁 및 판매, 기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업무	1940.5.2	堂甘 141	180,000	45,000	J
	塩山金屬工業2	외국용 양산 및 부분품 제작, 국내용 양산 및 부분품 제작, 이상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1942.6.17.	堂甘 71	198,000	198,000	J
가야	釜山玻璃2	피복 제조판매, 피복 생지 매개, 이에 부대하는 일체 업무	1939.11.	伽倻 384	100,000	60,000	J
	朝鮮電氣製鍊2	주강(캐스트 스틸), 주철(무쇠), 단강(강철), 품의 제조 공작 수리 판매, 선박, 함정, 토목 수리, 광산, 요업, 철도, 전기, 제철용 기계제 및 그 부분품 제작 수리 판매, 기타 일반 기계 철강 공작품 및 그 부분품 제작 수리 판매,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1940.8.28.	伽倻 256	2,000,000	1,000,000	J
	西村商事5	메리야스 포복 제품 판매, 잡화 판매, 이에 부수한 일체 업무, 釜山龍球工業2 제품 판매	1940.12.5. 1941.1.11.	伽倻 384 榮町 3丁目4	20,000 22,200	20,000 22,200	J
							J
범진	西面精米所4	정미 麥飴業 도정업 잡곡매매	1934.11.1 1944.11.1.	凡田	9,000	9,000	K
	朝鮮鉛筆2	각종 연필 제조판매, 이에 부대하는 사업	1944.9.11	凡田 368-8	180,000	54,000	J
부암	朝鮮工藝2	견직물의 제사업, 각종 유리한 가내공업 장려 사업	1935.10.25.	釜岩 102	50,000	50,000	J
	ニシキワ2	각종 면 및 침구류제조판매, 탈지면 및 봉대재료의 제조판매, 사업 목적이 같은 회사에 투자 등 각 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	1939.2.8.	釜岩 121	180,000	45,000	J
감만	朝鮮塗料油脂2	각종 도료 및 윤지 가공의 제조판매, 기타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1940.8.28.	截蠻 111	190,000	190,000	J

*출처: 『한국회사100년사DB』(2018.), 『朝鮮總督府官報』, 『銀行會社(組合)要録』

부록 2. 1936년 전후 서면 설립 공장

공장명	설립연도	최종수확관	대표	소재지	규모	주요생산품	민족
白石製鹽工場	1906	1932	白石馬太郎	西面 龍湖里	A	食鹽	J
釜山麻織物工場	1915.6		岩本幸一	西面 釜田里	B	麻織物	J
白石製鹽所	1916		白石馬太郎	西面 龍湖里	-	再製鹽	J
帝國製麻2 製布工場	1917	1936	長野直市郎	西面 伽倻里 50	C	廣唐布, 北布, 麻布	J
後藤製鹽工場	1917		後藤虎雄	西面 龍湖里	-	再製鹽	J
伊藤煉瓦工場	1919	1932	伊藤國太	西面 靛壁里	A	普通煉瓦	J
赤崎煉瓦工場	1919	1934	伊藤國太	西面 靛壁里	A	普通煉瓦	J
釜山窯業2	1920	1932, 1934	平野政吉	西面 內河里	B	普通煉瓦	J
釜山窯業2 煉瓦工場	1920		板田文吉	西面 田浦里	-	煉瓦	J
特許セメント2 瓦製造工場	1920		佐藤勝藏	西面 釜田里	-	セメント瓦	J
朴信一製瓦工場	1921	1942	朴信一	西面 釜田里	A	屋根瓦	k
金永政製瓦工場	1922	1932	金永政	西面 釜田里	A	屋根瓦	k
釜山織物工場	1925	1934	岩本幸一	西面 釜田里	B	綿布, 絹麻交物	J
南面醃造場	1927	1939	宋泰茲	釜山府 釜田里 514	A	濁酒	k
由岐衛牛化學試驗所	1927	1940	由岐榮治	釜山府 赤崎通 4丁目 4	A	ハイナシン	J
丸和漂白染色工業所	1927.9		金淳培	釜山府 門峴里 248		精鍊整理及漂白	K
釜山共同製紙所	1929	1932	增本透二	西面 內河里	A	製紙	J
國產商會綿業所	1930	1936	大島芳輔	西面 釜田里 70	A	綿	J
荒嶺醃造場	1931	1939	辛泌	西面 門峴里 116	A	濁酒	k
ニシキ織工場	1931.9	1934	奥清造	西面 釜田里	A	製綿	J
伽倻酒造場	1932	1938	朴基廷	釜山府 伽倻里 25	A	濁酒	k
栗田ゴム工業所	1932	1934	栗田嘉一	西面 釜田里	C	ゴム製品	J
三和護謨2 第三工場	1932	1937	米倉清三郎	西面 釜田里 495	C	ゴム靴	J
大石製綿工場	1932	1934	大石博	西面 釜田里 17	A	綿	J
大石製綿所	1932.1	1934	大石博製	西面 釜田里	A	製綿	J
丸新絹布工場	1934	1937	新龍三	西面 釜田里 239	B	人造絹布	J
丸新絹布工場3	1934	1938	清水弘	西面 釜田里 239	C	人造絹布	J
旭絹織2 第二工場	1934	1940	新龍三	釜山府 釜田里 239	C	交織人絹布	J
朝鮮金屬工業2	1934	1940	出口平右衛門	釜山府 伽倻里 359	D	自動車及金屬機械	J
釜山釀造2	1934.1	1943	河元俊 50,000	釜山府 釜田里 460	A	濁酒	k
西面精米所	1934.11		朴文舉 4,500원, 4,500원	부산부 범전리 368-8		精米	K
天一ゴム2 釜山工場	1935	1943	金英俔(早猛朝鮮?)	西面 釜田里 494-5	D	ゴム靴	k
天一ゴム工業社 釜山工場	1935	1943	金英俔(早猛朝鮮?)	西面 釜田里 494-5	C	ゴム靴	k
實生ゴム工業所	1935	1937	名倉明五郎	西面 釜田里 495	C	ゴム靴	J
小田製繩工場	1935	1939	小田清次	釜山府 門峴里 353	A	繩	J
奈良織布2 釜山出張所	1935	1940	樋口松治郎	釜山府 釜田里 17	休業	製綿	J
日光綿業所	1935.7	1943	李日瑞, 李明圭	西面 釜田里 66	A	綿	k
丸和工業2	1936	1940	谷禹三郎	釜山府 堂甘里 113	C	無地染人絹布	J
大立ゴム2	1936.1	1940	金明五, 100,000원, 100,000원	釜山府 釜田里 340-2	A	ゴム靴	k
大立護謨工場2	1936.6.22	1939	金明五	釜田里 340-2	B	ゴム靴	k
朝鮮數山工業2	1936	1938, 1939	金日守(水), 1937.1.5. 부전으로 이전	부전리 460	A	水餃(물餃), 製菓	K
アサヒゴム2 第二工場	1936.6	1941	小松壽太郎	부전리 340-2	D	ゴム類	J
釜田織工場	1937	1940	朴萬茁	釜田里 451	A	織物機械(附屬品)	k
東洋燃料2 釜山工場	1937.6	1940	金裁浩	釜田里 482	A	フルサム	k
帝國酸素2 釜山工場	1938	1940	松岡寅義	堂甘里 133-1	A	壓縮酸素瓦斯	J
釜山被服2	1938.12	1941	西村良作	가야리 384	A	被服	J

공장명	설립연도	최종수목관	대표	소재지	규모	주요생산품	민족
和成ゴム製粉工業所 (和成ゴム製造工業所?)	1939.5		金聖周	門峴里 366		ゴム製品	K
三和化學工業社	1939.5	1941	藤田悌三郎	감만리 511	A	燐璣	J
森林産業2 釜山工場	1939.8	1941	취제역 森林兵衛	부진리 748	C	織絲, 燃絲	J
朝鮮煉炭2 釜山工場	1939.9	1941	淸山椿一	牛岩里 482	A	煉炭	J
榊原絹絲工場	1940	1942	榊原政三	부진리 102		再製絹絲	k
丸金製綿所	1940	1942	白南衍	門峴里 351		落綿	k
朝日製綿所	1940	1942	金文鳳	진포리 725		落綿	k
朝日電球工作所	1940	1942	張世龍	부진리 514		豆電球	k
日本木材工業2 釜山工場	1941	1943	榊原載重	적기동 4-21		處理木材	k
帝國織物2 釜山工場		1942	長野直市郎	가야리 50		麻織物	J
朝鮮輸出編物株式會社		1942	西村良作	가야리 384		靴下, 手袋	J
にしきわた株式會社		1942	奥清浩	부암리 121		中人及浦團綿	J
池田富晒工場		1942	池田富映	가야리 269		火藥綿	J
中西鐵工營業所		1942	中西喜雄	적기동 1정목 7		土木建築用機械	J
桐岡セメント瓦工場		1942	桐岡半左衛門	문현리 336		セメント瓦	J
豐川製材工場		1942	豐川幸資	부진리 75		板材	J
豐川製材所		1943	豐川幸資	부진리 75		板類, 挽角類, 其他木材	J
日本木材2 釜山工場		1942	榊原武重	적기동 4정목 21		電柱, 枕木	J
朝鮮タオル2		1943	富原研二	부진리 335-1		混紡及交織物	J
寺尾織物工場		1943	寺尾清太郎	가야리 산 6-2		人絹とノ交織絹織物	J
慶南織物工場		1943	高橋庄次郎	부진리 17		白木櫛(スフ)小巾	J
朝鮮針針制作工場		1943	河村幸治郎	부진리 308		기타 針	J
華村鐵工所		1943	岩本 明	부진리 460		紡織機械及部分品	J
金田鐵工所		1943	大木豊三郎	부진리 1866		紡織機械及部分品	J
三和化學工業所		1943	衫本國藏	감만리 511		家具用陶磁器	J
東亞藥化學工業2 赤崎工場		1943	富原研二	적기동 4정목 4		殺蟲劑	J
若狹材木店2 製材工場		1943	若狹鐵雄	적기동 1정목 428		板類	J
池田富製綿所		1943	池田富映	문현리 358-1		反毛	J

*출처:『朝鮮總督府官報』,『朝鮮工場銘簿』(각 연도 판).

*비고:①공장의 경우 동일 업체의 경우 명칭이나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출처의 생산연도에 표기된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여 업체가 중복된 부분이 있다.②1941년 이후 공장의 설립연도는 원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생각한다. ③민족에서 ‘K=조선인 업체, J=일본인 업체’를 의미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war of the industry in Seomyeon region, in 1936.
-Based on Bujeon-ri and Gaya-ri areas in Seomyeon-

Sunwoo, Sung-Hy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ndustrialization of Seomyeon after the incorporation of Busan-bu, focusing on Bujeon-ri and Gaya-ri. Seomyeon, originally an administrative district of Dongnae-gun, was incorporated into Busan-bu in 1936. This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Busan-bu Metropolitan Government's plan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with the aim of solving problem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Busan-bu and the lack of land, and strengthening the military and industrial role of Busan-bu. At that time, Seomyeon was a flat land adjacent to Busan-bu and attracted attention as a place where various dangerous facilities and factory areas could be form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Busan-bu. Seomyeon was formed as an industrial zone and a marine industrial zone through land compartmentalization such as Bujeon-ri, Busanjin, and Jeokgi Bay, and maintenance of a traffic path network according to the Busan City Plan.

Since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Busan Ministry,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es in Seomyeon has increased, and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jump into the wartime control economy have emerged.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establishment of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incorporation of Busan-bu in areas other than Bujeon-ri and Gaya-ri, the northern areas of Seomyeon (Danggam, Buam, Beomjeon, and Jeonpo)

tend to have more workplaces since 1939. In particular, the number of workplaces was increasing around the Gyeongbu Line and the Donghae Nambu Line, and it was used as a military site around the railroa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Seomyeon (Moonhyeon, Gamman, Wooam, Jeokgi, and Yongho), there were many companies established at the time when the Busanjin, Jeokgi Reclamation, and Imhang Railroad were built.

Companies established in Bujeon and Gaya have tended to increase since 1939, and many companies were dominated by wartime and handled goods that could be consumed in daily life or jumped on the battlefield. In the case of Bujeon, it is an area that has been intensively maintained in Busan-bu's urban planning. In the case of Gaya, it was not an intensive maintenance area from the stage of incorporation into Busan-bu like Bujeon, but it is an area where power increase companies were intensively established around the opening of Gaya Station in 1943. In addition,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offices in Bujeon-ri and Gaya-ri is a traffic nodule area connecting "Busan-jin-Gupo/Dongrae-Port" and is convenient for not only passengers but also cargo movement. In addition, various industries or similar businesses are concentrated. In particular, Dongyang Fuel Co., Ltd., which produces chemical products to reduce coal fuel efficiency, installed a factory in Busan, and Chosun Electric Steel Co., Ltd. became the second designated military company, or the concentration of textile-related companies is an example of the wartime economy.

Keyword : Busan-bu, Busan Regional Administrative Region Expansion, Busan-bu urban district plan, land read justment, maintenance of urban district, Seo-myeon, Bujeon-ri, Gaya-ri, Electricity-enhancing industrial zone.

